

제 54 호

대립 제 2 주일

1973. 12. 9

숲 정 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함 승 천
주 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말 씀】

사제 양성 사업에 관심을 갖자

안 북 진신부

사제 양성 후원 사업은 지난번 추계 신부 전체 회의에서와 사무 협의회에서 결의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에 2천만원의 기금을 만들어 보자고 금년 1월부터 실시되었던 사업은 현재 8백여만원 선에서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초창기의 후끈했던 열기가 사라지고, 후원금의 불입 성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그 철의를 되새겨 보기로 합시다.

우리 나라는 아직 전교 지방입니다. 성경 말씀을 빌려 보면 추수할 것은 과연 많으나 일꾼이 매마른 지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남모르는 외국인들의 정성으로 우리 교장에서 일할 사제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만리 이국에서 언어와 생활양식이 다른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교육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외국에 의존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진리에 매달라있는 이 교장을 우리의 손으로 가꾸어야겠다는 비장한 결심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매너리즘(mannerism)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비 현실적인 사고 방식을 하루 빨리 불식해야겠습니다.

우리 가톨릭 사업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크고, 긴요하고 중대한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여러 해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해답은 학교도, 병원도, 고아원도 아닙니다. 성직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 사업이 가장 크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신학교와 신학교에서 사제품을 받은 사제들의 위치를 우리 육체에 비유한다면 심장과 같은 부분입니다. 심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눈에 보이는 다른 지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장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그 시간이 곧 죽음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톨릭의 심장부가 마비되는 날, 우리 교회도 죽고 말 것입니다. (물론 성신의 교회이니라 그럴 수는 없지만) 심장의 부분이 보이지 않으니가 무관심하기가 일쑤이듯이 우리 교회의 사제 양성 문제에 대해서도 자칫하면 방관하기 쉬운 일입니다.

사제 양성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코 내일로 미룰수 없는 문제입니다. 남에게만 의지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결의를 재확인하면서, 우리들의 영신 문제를 돌보아주고, 이 땅을 정화시킬 사제를 배가 하나 책임지겠다는 것을 하느님께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사업에 앞장 섭시다. (교구 성소 지도 신부)

이주일의 미사

□임당송 시은 백성아, 주께서 만민을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당신의 우렁찬 목소리를 들려주실 때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치리라.

제1독서 (바룩 5; 1-9, 경향잡지 12월호 P.)

하느님이 너로써 당신 영광을 보이시리라.

□총계송 ◎주께서 과연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못건디게 기뻐했나이다.

주여, 사로잡힌 우리 겨레를 남녘 땅 시냇물처럼 돌려주소서.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이다. ◎

□제2독서 (필립비 1; 4-6, 8-11, 성서 P. 448)

순결하고 잘못 없이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알렐루야.

□복음 (루가 3; 1-6, 성서 P. 129)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신자들의 기도

1. 정의의 하느님, 지금 이 시대는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자 요한의 소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가르칠 사명을 가진 분들에게 용기를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2. 일치의 성신이어, 지금 당신의 교회에는 다른 어느 때 보다 일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서로 일치하여 당신의 사랑 안에 살게 인도주소서. ◎

3. 주여, 제1차 성년 행사가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나이다. 우리들의 노력을 저버리지 않는 당신의 사랑을 모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주여,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어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대립절 감사송 1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천주께로 부터 오는 기쁨을 보라.

* 숲 정 이 산책 *



대림 때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김영구 신부



한 나라의 국민은 국민력(國民歷)을 따라서 사는 것처럼 신자들은 교회력을 따라서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사람들은 보통으로 과거를 회고하여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새해에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생활을 하도록 결심하는 것입니다.

대림을 대강절(待臨待降節)이란 뜻은 장차 임하실 구세주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때, 즉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四천년 동안 구주(救主)를 기다리며 준비했지만 우리는 성탄절 四주간 동안 준비하는 셈입니다. 이 짝막한 동안 우리는 어떻게 지낼 것인가?

첫째 구세주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교회에서는 신자들이 하여금 구세주의 세가지 지상(地上) 내림을 묵상케 합니다. 즉 하나는 예수께서 二천년 전에 말기유에 비천하게 탄생하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후 세말에 내림하실 것이고, 그 다음은 우리를 성화키 위하여 성총으로 우리 심중에 내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매, 옛 선조와 신자들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갈망했듯이 구세주 우리 심중에 성총으로 내림하사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도록 간원해야 합니다. 구세주 내림을 갈망했던 구약 성현들같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심중에 임하시기를 절원하며, 그들과 같이 “하늘은 의인을 이를 같이 나리우고 구름은 비같이 나리우고 땅은 열려 구세주를 발생하라”(이사야 45장8) “구세주여! 하늘을 열고 내려 오소서”(이사야 64; 1) 하고 우리도 부르짖읍시다.

둘째, 장림 때는 고신 극기 보속하는 때입니다. 미사 드리는 사제는 보속을 상징하는 제의를 입고 미사 경본에는 즐거움을 표시하는 알렐루야를 생략하고 보통으로 풍금도 치지 않습니다.

세째 요한은 구세주의 신구자로서 광야에서 자신이 부드러운 옷대신 거칠은 약대 털로 몸을 가리우고 맛있는 음식대신 메뚜기를 잡수시면서(너희는 통회 보속하여 회개하라) 의치신 것은 당시 구세주를 맞이할 유대인들에게 산교혼을 주신 것이요, 또 우리에게도 깨우쳐 주시는 산소리입니다.

마치 물체에는 그림자가 따르는 것과 같이 죄에는 언제나 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 하였으니 당연히 벌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벌을 금세에나 후세에서다 보속해야만 천당에 갑니다.

형제 여러분! “지금이야 말로 성총을 받을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고린트 후서 6장3) 하신 말씀은 대림 성시에 가장 알맞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때 성총과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열렬한 기구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림 때에는 조만과를 잘 바치고, 주일 뿐 아니라 사사날에도 미사참례하고 성사받는 것은 가장 좋은 일입니다.

셋째, 대림 때에는 죄를 힘써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탄을 준비하는 데 첫째 조건이 됩니다.

귀한 손님을 집에 모시려할 때 제일 먼저 할 것은 손님이 드실 방을 깨끗이 소제해야 하고, 손님의 기분을 상하게 할수 있는 모든것은 없애야 합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손님이신 영혜 예수께서는 당신의 무한한 구속공로를 가지고 우리 마음의 집을 왕립하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집을 더럽히는 죄인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하고, 마음의 집을 비질하고 깨끗이하고, 아름답게 성총으로 꾸며야 하겠습니까. 그래야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당신의 풍성한 구속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바오르성도는 잘 말씀 해 주십니다 “백주에(白晝)함같이 정직하게 걸을지니, 폭식(暴食)과 폭음이나 간음과 음탕한 일이나 쟁론과 질투에 나아가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지니라 그리고 성욕이 충동되도록 육체를 삼키지 말지니라”(로마서 13장 13-14)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없는 성모님을 효범 합시다. 성모님의 지극히 정결하시고 깨끗한 품안과 같이 주의 성전인 우리 마음을 죄로 더럽히지 말고 깨끗이 보존합시다.

(전주시 교동 1가 132-4)

□창간 1주년 기념행사□

퀴즈 놀이 (2)

■ 문제 ■

1. 그간 (52호까지) 순정이에 여러 차례 광고가 게재되었습니다. 제일 많이 실린 광고는 <스타사장> 일까요, 아니면 <동남샤프> 이겠습니까?

2. 순정이를 받아 보고 제일 먼저 읽는 내용은?
3. 순정이에에서 알찬 내용이라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들만 적으시오.
(예; 강론, 대화의 광장, 양지쪽, 소리 등)

☞방법☞ (제 53호 참조)

조흥(사자표)페인트 대리점
(전철 전문)

대동지 페인트를상사 } 고급벽지
비닐장판
하드보드
각종페인트

● 동문 사거리 전화 5986
임정원 (도민교)

제일 비싼 독일의 3년 연속 V.A.
번식 성적 1위인 판토호의 직자.

랙스 V 래토프



(입한진 애견)

문의처: 전화 7692(진북동 어은골)

※ 최신형 드레스 및 신부화장 ※

결혼 미용실

교우 여러분께 반액 봉사

● 중앙성당 앞
전화 6794

이현주(메레사) 올림

양 지 쪽



광야의 소리

“너희는 주의 길을 탐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매우고 높은 산과 작은 피는 깎아내려 굽은 길이 곧아지며 험한 길이 고르게 되는 날 온 인류는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사야 예언서 40 ; 3-5)
 오늘 복음에서 들을 수 있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이다.

요르단강 주위의 모든 지방을 두루 다니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시오.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입니다.” 하고 선포하는 세례자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처럼 절실한 때도 없다. 무언가 온 세계가 회개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다. 몇 나라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약소국은 피를 흘려야 하는 꼭두각시 놀음판이 벌어지고 있는 이 엄숙한 현실 앞에서 누가 입을 벌려서 아니라고 할 자가 있을까? 힘의 철학이 지배하는 비정한 국제 사회의 면모는 자유중국이 처해있는 현실에서 바로 입을 수 있다. 여기에 바로 회개가 필요한 것이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골짜기는 없는가? 우리 가정에 우뚝 솟아 있는 높은 산과 작은 피는 없는가? 우리 교회 안에 숨겨져 있는 굽은 길은 없는가? 우리 나라 안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험한 길은 없는가?

그 골짜기, 높은 산과 작은 피, 굽은 길과 험한 길은 무엇을 뜻하는가? 제일 큰 것은 바로 우리들 안에 가득차 있는 불신(不信), 바로 이것일 것이다. 그리고 부정과 부패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이 해소될 때 까지 우리는 죽도록 노력해야 하고 소리질러야 한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세례자 요한은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기에 더욱 그렇다. (갑)

요십이 (21) 김병오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관장 신부 박 진량, 총무 안 지은, 전화 23498)

- 11(화) 7시반.....성경교실
- 13(목) //지성인 교리
- 14(금) 8시.....레크레이션 (주최 : 가톨릭센터와J.O.C)

외국 문화 교실

- English Conversation.....월~금요일 7시
- 독어-Heideros.....화, 목요일 6시
- Morgentau.....월, 수요일 6시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 성 바오로 서원 *
(전화 27398)

* 이 주간의 성경 *

- 10(월) 독서 (필립비 1:12-14, 성서 P.448) 복음 (루 가 5:17-26, 성서 P.136)
- 11(화) 독서 (필립비 1:15-20, 성서 P.449) 복음 (마태오 18:12-14, 성서 P.43)
- 12(수) 독서 (필립비 1:21-26, 성서 P.449) 복음 (마태오 11:28-30, 성서 P.25)
- 13(목) 독서 (필립비 1:27-30, 성서 P.449) 복음 (마태오 11:11-15, 성서 P.24)
- 14(금) 독서 (필립비 2:1-5, 성서 P.450) 복음 (마태오 11:16-19, 성서 P.24)
- 15(토) 독서 (필립비 2:12-18, 성서 P.451) 복음 (마태오 17:10-13, 성서 P.40)

일본어(日本語)교수

기초부터 회화·번역까지

<12월 1일 개강>

●전동1가 200의1 (전화 23222)

장 북만(요셉)

고급차집. 경제한음악. 병온방시설

(신장개업)

새로운

남문다실

남문여관 지하실 직통 24881

교환 2169 5017

* 단 교우 월부 판매 *

동남샤프 { T 병장고 석유스토브 V }

● 전주극장 동편 입구

전화 28121

여요셉(운창)

전주 시내 6개 분당 소식

(중앙)

전화 2651 3874

주임 신부 안복진
사도 회장 이복석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임원, 고문, 구역장 전원 참석 바람.
2. 판공 성사
아직 못보신 분은 매 미사후에 보십시오.
2. 합동 혼배 (오늘 오후 3시)
많이 참석 하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4. 11월말 현재 유지비 결산보고
수입(1,103,157원)-지출(719,822원)
※ 잔액 383,355원
★ 축 합동 혼배 ★
각 가정의 무궁한 번영과 행운을 빕니다.
-본당 진자 일동.
□지난 주일 봉헌금 38,657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성탄 판공 성사
20(목)...다가동1·2·3·4가, 중앙동1·2가, 완산동
21(금)...고사동1·2가, 태평동 2가, 화산동
22(토)...호자동, 진북동, 기타
시간...매일 오전 10-12시, 오후 2-5시, 7시미사후
2. 복자 성우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신부님 모시고 최 요셉 회장님께서.
3. 팀 회합 (월요일 저녁 7시, 본당 사무실에서)
4. 교무금을 정성껏 납부하여 교구와 분당 운영의 의무를 다합니다.
□지난 주 성미 1말 5되 (누계 224말)
지난 주일 봉헌금 11,535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합승철
사도 회장 조해형

1. 신용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부녀회 월례회 (다음주일)
3. 신원리 공소 회장에 최 종영씨
총무 방 요셉씨, 재무 전 수남씨.
앞으로 더욱 수고해 주십시오.
4. 본당 교우 가운데 성사 못보신 분은 다음 날자에
22(토)...남노송동, 23(일)...중노1가2가, 24(월)...인후·우아동.
시간...오전 10-12시, 오후 3-5시반, 8-10시,
□지난 주일 신축성미 4말 5되 (누계 104말 5되)
□지난 주일 봉헌금 12,905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227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1. 가을 공소 판공
10(월)...의암리, 마치리, 12(수)...양생동
13(목)...우염터, 14(금)...마음리
2. 상관 성년 행사 (오늘 10시, 강사; 박진량신부)
3. 사도회 임원 개편
회장 이거영(알로이시오), 부회장 조상철(그레고리오)
모든 신자들은 진심으로 축하와 경의를 드립니다.
4. 신용조합 이사회 (오늘 공식 미사후)
□지난 주일 봉헌금 11,783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김종환

1. 공소 가을 판공 성사
11(화)...전당리, 12(수)...미산리, 13(목)...내동리,
14(금)...동산촌
2. 신용조합 임원회 (오늘 공식 미사후)
월례회 (다음 주일 공식 미사후)
지난 2~4일에 열렸던 신용조합 교육에 42명 참가.
3. 성년 행사에 500명 참가
받은 은혜에 모두들 감사합니다.
★ 축 결혼 ★ [15일(토) 12시]
신랑 송 주현군과 신부 박 봉순양
□지난 주일 봉헌금 7,049원
성년 행사 특별 성금 13,300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3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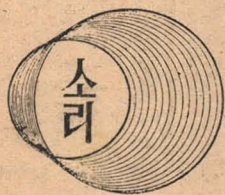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재진

1. 가정방문 (구역장과 레지오 간부 참여 바람)
11(화, 12(수)...동교동, 13(목)...서교동, 전동
14(금), 15(토)...풍남동, 18(화), 19(수)...동완산동
20(목)...서완산동, 21(금)...노송동, 22(토)...기타동
2. 자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3. 성가 연습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성탄 성가 연습은 10시 미사전에 10분간
4. 영세자 교리 (수·토요일 미사후)
5. 판공 성사 안 보신 분은 미사 전후에
6. 신용조합 월례회 [14(금) 오후 7시반]
□교무금 신입 현황 2,506,100원(434세대)
부녀부 성미 14되, 현금 53,185원
지난 주일 봉헌금 31,053원, 감사합니다.
오늘 애평회 특별 헌금 있습니다. 협조바랍니다



숲정이 제자(題字)를 써주신 김규완 선생님께서 감사드립니다
-숲정이 편집실-

※ 김 규완(박오로) 선생님
(왕신여중·교 교감
국전 서예부에 수차 입선)



◎창간 1주년 기념행사랍 시고(퀴즈 놀이)를 시작해 보았다. 고마웁게도 열분이나 정성어린 엽서를 보내주셨다. 국민학교 5학년 어린이의 엽서부터 시작해서 학생, 아저씨, 아주머니의 엽서 등 다양하기만 하다. 비록 열분이지만 말이다.

요사이 방송이나 텔레비전을 보면 이런 퀴즈놀이에 주어지는 상품들이 푸짐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무슨 셋트, 양복지 한갑 등등 하는 마력에 끌려서인지 응모하는 울도 펍 높은 것 같다. 그런데 전주시내에 만여명의 교우가 있으면서도 숲정이에 관심을 가져주신분은 열분 뿐이런데에 숲정이가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다. 왜 이럴까? 엽서 보내주신 열분은 새 숲정이를 위한 편집 방향에 고견을 주셨기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